

「 인터뷰 」

시민 소방안전의식 고취위해 전광판 설치



강 동 성
포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포천시민들이 소방안전의식을 갖고 화재예방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야 합니다.”

직원에게 부담주지 않는 행정으로 깨끗한 봉사

포천소방서 강동성(54·사진) 소방행정과장은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양동초등학교, 송일중학교를 나와 의정부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9년1월5일에 소방관으로 첫 입문해 30여년을 경기 북부지역 소방서에 근무해왔다.

강 과장은 지난해 7월18일자로 포천소방서에 부임했으며 소방행정과의 주요업무인 직원들의 예산, 인사, 감찰 등의 업무를 총괄 하고 있다.

강 과장은 예방과나 방호구조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제때 지원 하는 일도 소방행정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하고 포천소방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강 과장의 별명은 '독일병정'이라며 매사에 부당한 업무처리로 직원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과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과장은 1979년1월5일 지방 소방사로 의정부소방서에 최초 발령 받았으며 1984년 지방소방관으로 연천군 민방위과, 1991년12월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해 고양소방서 지도과장, 1992년4월 지방소방위로 승진해 동두천소방서, 1996년9월 지방소방경으로 승진해 하남소방서, 2005년8월19일 지방소방령으로 승진하고 남양주소방서를 거쳐 2006년7월18일 포천소방서로 발령됐다.

강 과장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의정부시장, 의정부소방서장, 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 과장은 소방행정과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사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행정과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행정지원관련 기획업무▶근

무평정, 경력평정 등▶서내 인사관리 및 부서발령▶징계,상훈(심의)▶징정,고발,부조리 신고업무▶소방력조사 및 기준제정▶연간 교육훈련계획▶소방혁신 등 운영▶소방정책 학습동아리 운영▶서내 감찰활동▶소방행정 여론청취▶서의 의견▶각종 동향▶성파상여금▶직원 신분변동 및 기록유지▶직원 인성 및 청렴▶직원 체력검정▶운전면허 조회▶공직자 재산등록▶보안업무 심사분석▶관인 관수에 관리▶의무소방원 복무관리▶기본,전문,직장 교육▶각종 현안업무 및 통계▶호봉승급▶직원 인성, 전력조회▶기록물 관리▶각종 행사▶직원복지, 후생 및 복무▶행정정보공개처리▶문서(민원)접수, 통계 및 발송▶연금 및 의료보험▶신분증 및 휴직관리▶각종 증명서 발급▶소방행정과 사무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의 비전을 제시하는 여성’

2007 포천시 여성지도자 워크숍



포천시는 10월16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관내 여성단체 및 주민자치 위원 등 여성지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포천시는 10월16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관내 여성단체 및 주민자치 위원 등 여성지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식, 포천시장 특강, 태평양뷰티 김지숙 강사 특강, 과장정리와 설문조사, 평가식물원 관람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지도자는 비전과 변화가 있어야 하며, 강하 기간 하강보다는 부드러운 강하가 중요하다. 도전하다 보면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며, 결과에 승복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하며 흘러가는 대로 살기보다 흐르는 물을 헤쳐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미환 포천시 가족여성과장은 “올해부터 여성단체만 지도자로 보는 시각을 탈피하여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고 이제는 여성들이 권익을 위해 소리를 내야 하는 시기이며

서로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키워주는 것도 지도자로서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태평양 뷰티의 김지숙 지도 강사는 21C 지도자의 사회 참여, 지도자의 성공비결, 유형별 인간관계와 갈등관리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강의 중 6개조로 나누어 포천시 홍보 및 구호를 제시하도록 했고 이제는 여성들이 권익을 위해 소리를 내야 하는 시기이며

다”라는 구호가 가장 많은 관심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여성 주민자치위원은 “처음 받은 교육인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고 여성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때마다 열심히 배우 봉사활동에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경 주부행복지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자유기고

신바람 건강웃음 체조 레크리에이션



김순연
주부행복지단 부단장

경로 담 앞에서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든다. 백발의 우리 어르신들의 인사법이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라고 처음 이야기 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의 표정은 웬지 서먹서먹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것인가? 체면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는 난감한 표정들이었다.

“난 왜 안 되는 거야? 내 얼굴인데 찾을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하며 박장대소하는 모습들. 어느새 걱정은 모두 없어진 듯이 시원스럽게 말씀하신다.

“이게 웬일이야? 어릴 적에 나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박수치고 놀았지. 이제 칠십이 훨씬 넘어서 이런 자리에 앉았더니 정말 놀랄 일이지” 하시면서 웃음으로 대답하신다.

화투짝 만지며 하루를 보내던 모습에서 이제 일주일에 3회 웃으면서 운동하며 보내나기 기다려진다고 한다. 실상 어르

신들이 웃음치료를 받는 것도 생소하고 건강체조라 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다. 조금만 아프거나 재미없으면 바로 안 하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반응이다. 재미있어야 하고 쉬어야 한다. 서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고 한 번 한 배려를 해 드려야 어르신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나 소외되는 계층이 있듯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가다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관심이다. 젊은이들의 관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관심으로 표현해 주면 더 좋아하신다. 담하였던 마음들이 하나둘씩 열려갈 때면 어르신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바람 건강웃음체조 레크리에이션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처럼 노인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3개월 동안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여겨진다.

노인들의 마음을 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119신고자 상황처리 문자서비스 제공

포천소방서, 지난 3개월간 707건 서비스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각종 화재, 구조, 구급출동시 시민이 최초 119신고 때부터 소방서의 상황처리 완료시까지의 처리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문자 서비스를 통하여 사고 당사자에게는 급박한 사고로부터 당황스러움을 해소하고 119신고자에게는 금급증을 달아 주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방서비스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문자 제공은 포천소방서 구조구급재난상황실 근무자 및 당직 근무자가 상황실내의 일체동보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전송 실적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약 707건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점차로 동월기로 늘어감에 따라 증가되는 추세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장학금지급 · 신규위원 위촉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지구협의회 월례회의



송순석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지구협의회장은 10월12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장학금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지구협의회(회장 송순석)는 10월12일 오후6시에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위원 위촉 및 장학금에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천 포천시의회 의원이 신임 회원으로 위촉되어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에게 장학금40만원씩 8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법무부범죄예방위원들이 추천한 장학생 18명은 오는 11월23일 한복청소년예술행사에서 장학생 1인당 30만원씩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송순석 회장은 “이 장학금을 받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정연(동남고 1년)▶남시라(금오여중 3년)▶문진실(동남고 2년)▶박무시아(내촌중 2년)▶배이슬(관인고 3년)▶이미현(포천여중 3년)▶이용기(관인중2년)▶차승현(동남고 2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명성산&산정호수 환경 지킴이 봉사활동

한화리조트/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맞아

명성산&산정호수 환경 지킴이 한화리조트/산정호수(본부장 조용하)는 창립55주년 기념 및 사회봉사단 설립을 맞이해 10월8일 직원 35명이 명성산&산정호수 환경 지킴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0월13일~28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맞이해 포천시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며 관광객들에게 불거리 제공을 위해, 아름답고 깨끗한 산정호수와 명성산을 만들기 위한 환경 지킴이 활동이다.

이날 활동에 대해 산에 오르는 내내 등산객들 “좋은 일 하십니다”라고 건네는 인사말에 봉사자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리조트/산정호수 조용하 본부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보호 활동은 국토를 청결히 보존하고 회사의 친환경적인 정책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명성산&산정호수 환경 지킴이 한화리조트/산정호수는 창립55주년 기념 및 사회봉사단 설립을 맞이해 10월8일 직원 35명이 명성산&산정호수 환경 지킴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월빙

부사의(不思議)

세상(世上)과 세월(歲月) 33

“세월(歲月)을 낚는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상(世上)’인심 참 고약하다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월과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의 범상해 풍기는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말이다. 물리적(物理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정감(情感)을 주는 말이다. 세월은 단 순히 흘러가는 시간(running time)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계절(季節)을 말하는 것이고 변화(變化)를 말하는 것이고 인생(人生)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 속에 오고 가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부경(天符經)에서 일묘연만양만대(一妙衍萬往來) 용변부동본(用變不動本)이라 한 것이다. 일년 사계절 오가는 속에 만물이 변화무쌍하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월이 시간(時間)이라면 세상은 공간(空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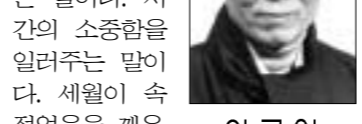
세월 속에 세상일이 담겨 있다. 세월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라면 세월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담겨있기에 세월이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면 구지 세월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담겨 있기에 그리 부르는 것이고 인생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담겨 있기에 그리 부르는 것이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함께 명멸(明滅)하기에 그리 부르는 것이다. 생노병사(生老病死)가 함께 하기에 그리 부르는 것이다.

세월이 시간(時間)이라면 세상은 공간(空間)이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공간이고 우리의 ‘생활(生活)’이 담겨있는 공간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노병사’를 의식한다는 말이고 ‘희노애락’을 의식한다는 말이다. 생노병사를 의식하면서 ‘세월’을 관조(觀照)하고 희노애락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관조한다는 말이다. 세월이 시간(時間) 중심으로 일

어나는 일이라면 세상은 공간(空間)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심리적(心理的) 공간이다. 세상사(世上事)가 담겨있는 ‘심리적 공간’이다. 그래서 지구(地球)라 부르지 않고 세상이라 부르는 것이다. 세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월은 물리적 시간이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인생이 여삼추(如三秋)란 그래서 생겨난 말이다.

여삼추란 가을을 세 번 맞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시간의 흐름이 그처럼 빨리 흘러간다는 말이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다.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다는 것이 다. 소년이노학년성(少年易老學難成)하니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촌음이라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계절도 마찬가지이다. 계절도 세상이나 하는 이유이다. 알아듣기 바란다.

소리가 들린다. 시간의 소중함을 일러주는 말이다. 세월이 속절없음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이규임
민국행정학회 회장

세월을 낚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비판(悲觀)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상대적(相對的)인 것이다. 촌음이라도 아껴 쓰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니 허송세월(虛送歲月)하는 사람에게는 속절없는 것이다. 끈은 낚시를 드리우는 강태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낚미의 뒷만을 하는 삐딱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내’가 있음으로서 상대(相對)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음으로서 나와 상대와의 관계(關係)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빼놓고 말하는가? 모두 내가 할 것이다. 세월도 세상도 내가 할 것이다. ‘때문에’ 하지 말고 ‘덕분에’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알아듣기 바란다.

자유기고

바쁜 하루



이명선
주부행복지단 부단장

저는 매일 5시10분이면 일어나서 천보산 등산 등산 등산 10km 마라톤을 한다. 포천신문 주부행복지단 부단장 로도 써내야 하고 포천시민안전봉사대원으로 봉사활동에도 나서야

하며 경기소리보존회 회원으로서 영평팔경가 공연 연습도 해야 한다. 또 마라톤 동호회 회원으로 마라톤도 하고 있다. 요즘에는 행사가 많아 잘 뛰지도 못하고 있지만 오는 10월 28일에 개최되는 춘천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연습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다. 식구들 얼굴도 잊어버릴 정도다. 10개월 된 손주

가 할머니 얼굴을 몰라 볼 정도다. 컴퓨터도 배워 인터넷에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손주 얼굴이 보고 싶으면 싸이월드 사진첩에서 들여다보기도 한다. 또 포천시의 각종 정보를 알기 위해 포천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한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보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다.